

자원부족의 새로운 돌파구

연료의 장기안정공급이 용이한 원자력 발전



허 선 아
(순천여고 2학년)

순천에서 출발하여 고속버스로 3시간을 달려 부산에 도착했다. 3시간이라는 차이를 두고 말씨도 다르고 환경도 판판인 생소한 곳에 서게 되어 얼떨떨했다. 목적지인 애린 유스호스텔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어둠이 내린 후였다. 서울과 춘천, 대구, 예천, 순천에서 온 일행은 모두 10명이었다.

일행은 저녁을 먹는 자리에서 각각 자기 소개를 하였다. 모두들 초롱초롱한 눈망울에 저마다의 꿈을 키워나가고 있는 것이 보이는 듯했다.

저녁 식사후 부산시내를 잠깐 구경한후 유스호스텔에 돌아왔다. 만난지 몇시간 지나지도 않았건만 우리들은 새로운 것을 접하는 것에 대한 좋은 공감대를 형성하여 이미 좋은 친구들이 되어 있었다. 1박2일의 짧은 시간에 대한 안타까움과 새로운 사건의 호기심으로 늦게까지 잠을 못이루었다.

이튿날 아침, 일찌감치 눈을 뜨고 일어나 출발 준비를 했다.

한대의 관광버스에 널찍하게 자리잡고 앉아 드디어 원자력발전소를 향해 출발했다. 원자력 산업회의에서 파견된 아저씨의 안내를 들으며 보는 부산의 아침 풍경은 꽤 활기 차 있었다.

한참 후에야 목적지인 발전소가 보이기 시작했다. 바닷가에 접해서 하얗게 자리잡은 원자력 발전소를 볼때 부터 나의 머리는 형용하기 어려운 흥분으로 뛰놀기 시작했다. 발전소에 도착하여 보니 방위산업체라 그런지 경비가 아침 서리 같았다.

우리는 우선 전시관으로 들어가 시청각실에서 원자력발전소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원자력발전의 원리에서 부터 원자로의 구조 및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에 관한 세부사항까지 이해할 수 있었다. 다음에는 강당에 들어가 다시 그 설명을 체계적으로 스크린을 통해 보았다.

인류에게 새로운 동력에너지로 등장한 원자력! 이것이야말로 자연을 합당하고도 적절하게 사용하려는 인간의 노력의 산물인 것이다.

연료의 가격이 저렴하고 연료의 장기안정공급이 용이한 원자력발전. 이 원자력발전소가 현재 건설중인 것이 모두 준공되면, 우리나라의 발전용 유류 의존도는 1984년 48.6%에서 1991년에는 20.0%로 크게 줄어들게 된다고 하니 해마다 원유 수입에 막대한 외화를 들이는 우리나라로서는 자원 부족의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된 것이다.

설명을 들으면서 우리들이 아직 해결되지 못한 것이 있었다.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에서 나오는 폐기물의 처리문제에 관한 것이었다.

설명에 의하면, 기체나 액체폐기물은 그 방사능을 측정하여 무해를 확인한 후 방출시킨다고 했다. 문제는 고체폐기물이다. 고체폐기물은 압축, 소각하여 부피를 줄인 후 발전소 부지내의 창고에 저장한다고 했는데, 그 부피를 얼마만큼 줄이는지 모르나 언제까지나 그렇게 저장할 수 있을지 의문스러웠다. 땅에다 묻는다고 해도 웬지 안심이 되지 않았다.

또 다른 위기가 오기 전에 핵융합이나 태양에너지에 의한 새로운 에너지 개발이 요구됨을 느꼈다.

시청각에 의한 설명을 다 듣고 난 후 1호기 준공기념탑 앞에서 사진을 찍고, 전망대에 올라 넓은 부지위에 우뚝 솟아있는 1·2·5·6 호기의 웅장한 모습을 보았다.

발전소 견학을 마치고 다시 버스를 달려 해운대 바닷가에 내려다. 원자력 이야기로 복잡해 있던 머리속이 바닷바람에 씻겨져 파도와 함께 떠밀려가는 듯 시원했다.

다음에 버스를 달려 도착한 곳이 태종대였다.



아! 몇 백년, 몇 천년동안 파도에 깎이며 오염히 서 있는 저 바위. 그 웅장한 자연에 비하면 인간은 한낱 미물에 지나지 않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계선 이 연약한 인간에게 저 거대한 자연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이다. 우리 인간은 이 고귀한 권리를 결코 남용하거나 오용해서는 안될 것이다.

인류에게 새로운 동력에너지로 등장한 원자력. 이것이야말로 자연을 합당하고도 적절하게 사용하려는 인간의 노력의 산물인 것이다.

짧은 시간이나마 정들었던 친구들과 아쉬운 작별을 하고 순천행 고속버스에 몸을 싣고서 차분히 이틀간의 일들을 생각해 보았다.

조금은 고생스럽기도 했지만, 낯선 것들을 대하면서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느끼면서 나의 새로운 발전의 계기가 되었음을 확신할 수 있었다.

끝으로 이러한 좋은 기회를 마련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이 글을 마치고자 한다.